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천만년 높이 받들어 모시렵니다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신년사 김정은

친애하는 동지들!

사랑하는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들, 동포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진군길에 뚜렷한 자욱을 아로새긴 2013년을 보내고 앞날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 자부심에 넘쳐 새해 2014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먼저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없는 그리움과 뜨거운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지난해에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련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 당을 따라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고있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으며 온 나라 모든 가정들에 더 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또한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녘겨메들과 조국의 통성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해외동포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로선을 받들고 총공격전을 벌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자랑찬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내이고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장건 65돐과 전승 60돐에 즈음한 정치행사와 지난해 투쟁의 전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어갈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펼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와 당을 어머니품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들의 뜨거운 충정이 하나로 되어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의紐대가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해에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의 벽찬 시기에 당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적중한 시기에 정확한 결심으로 반당반혁명종파일당을 적발속청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백배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당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으로서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며 인민을 위하여 더욱 헌신할것이라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고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국방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은 역척의 신념과 배짱으로 국방과학의 첨단을 돌파하여 선군조선의 위력을 떨치고 국방력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내무군 장병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을 지니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으며 적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 책동과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쳤습니다.

지난해에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들에서 생산적양양이 일어나고 자립경제의 토대가 더 튼튼히 다져졌으며 특히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려운 조건과 불리한 자연기후속에서도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인민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우고 건설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놓았습니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펼쳐나신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날을 따라 새롭게 변모되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였습니다. 세포등관건설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에 펼쳐나신 건설자들은 부다치는 난관을 이겨내며 자연을 길들여 땅의 원대한 구상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습니다.

지난해에 체육과 교육을 비롯한 문화부문에서도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온 나라가 체육열풍으로 들끓었으며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은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쳤습니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실시를 위한 준비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으며 현대적인 의료시설들이 갖추어져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가 개선되었습니다. 음악예술부문에서 시대의 명곡들이 많이 창작되어 천만군민의 마음을 총성의 세계에로 승화시키고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하였습니다.

지난해의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로선과 정책,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전당, 전군, 전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영웅적투쟁을 과감히 벌린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입니다.

신년정사는

1 면 에 서 계 속

우리는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사상, 우리 힘, 우리 식이 제일이며 웅대한 이상과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성스러운 위업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뜻깊은 2013년을 경이적인 사변들로 빛내인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새해 2014년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입니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이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추전장과 잇닿아있는 승리의 전군입니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는 할 전투적 구호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이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나가며 그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니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건설은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선입니다. 건설부문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제기일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살림집건설과 합숙건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며 문화봉사기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일떠세워야 합니다. 올해에도 군민협동작전으로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건설하고 도, 시, 군들을 해당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게 잘 꾸려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이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망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과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고 첨단을 돌파하여 지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로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이며 금속,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금속,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주체화, 현대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의 원료, 연료와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철강재와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을 넣으며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이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경공업공장들에서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여러 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산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수산부문에서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결사판철하여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포구마다에 만산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며 바다가양식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해양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여나가며 나무심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잠재력과 내부에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절약은 곧 생산이며 애국심의 발현입니다.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한W의 전기, 한G의 석탄, 한방울의 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며 모두가 높은 애국심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해나가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판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당의 령도밑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과 판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에서 큰걸음을 내짚어야 합니다.

교육부문에서는 혁명의 요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중등일반교육을 비롯한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건부문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은 강성국가건설에서 혁명적진군의 나팔수, 힘있는 추동력입니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와 들끓는 현실에 발맞추어 사상에 숭성이 높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대적명작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은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체육인들이 세계적인 패권자가 될 높은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체육의 대중화방향을 판철하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니다.

국방력강화는 국사중의 국사이며 강력한 총대우에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도 평화도 있습니다.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오늘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서 중시고리는

군대의 기본전투단위이고 군인들의 생활거점인 중대를 강화하는것입니다. 모든 중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최정예전투대로, 친혈육의 정이 차넘치는 정은 고향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군인들을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전투훈련을 강화하고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군인들을 백발백중의 사격술과 무쇠같은 체력, 강한 규률성을 지닌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키워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안에 당의 령군체제와 혁명적공공을 철저히 확립하여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하며 로농적위군은 전투훈련을 강화하고 언제나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 정밀화 된 우리 식의 현대적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하겠습니니다.

정치사상진지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보루이며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 화강명을 선포하신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안에 유일적령도체제를 철저히 세우고 당대렬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와 우리 당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에 저해를 주고 일심단결을 해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하여서도 강성있게 대하고 철저히 극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제도를 좀더는 이색적인 사상과 퇴폐적인 풍조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로 발동시켜야 합니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선,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에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정책과 방침, 국가의 법과 결정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법규범과 질서를 지킴으로써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서원, 인민의 총부로서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 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꾼으로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하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략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행위입니다.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북침핵전쟁 연습을 광범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 오게 될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것입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합니다.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살고있는것만도 가슴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것은 용납될수 없으며 그것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줄뿐입니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이상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남조선 당국은 무모한 동족대결과 《중북》소동을 벌리지 말아야 하며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남관계개선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것이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것입니다.

지난해에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의 자주권과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전쟁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세계최대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핵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전쟁위협이 조성되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지만 그것은 바라거나 구걸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조선반도에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강력한 자위적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갈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투쟁과업은 방대하며 우리의 앞길에 난관도 있지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입니다.

모두다 웅대한 포부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새해의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영원한 태양 조선의 미래를 축복하며 사회주의조국땅우에 주체의 붉은 노을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쿠바 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아 바 나 쿠 바 공 산 당 중 앙 위 원 회 제 1 비 서
쿠 바 공 화 국 국 가 리 사 회 위 원 장
쿠 바 공 화 국 내 각 수 상

라울 까스트로 루쓰동지

나는 쿠바혁명승리 5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전체 쿠바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형제적쿠바인민이 피델 까스트로동지와 당신의 영도밑에 내외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하고있습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반제자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한길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쿠바당과 정부를 영도하는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 선 로 동 당 제 1 비 서 국 장 관
선 방 민 주 위 인 민 군 최 고 위 사 령

김 정 은

주제 102(2013)년 12월 31일 평 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쿠바공화국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쿠바혁명승리 55돐에 즈음하여 주조 쿠바공화국대사관 에 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지난해 12월 31일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쿠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베푸는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덕은 날로 더해만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 열성자들의 회합에 참가하여 수도 평양에서 품갈은 나날을 보내고있는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에게 또다시 뜨거운 응원을 베풀어주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지난해 12월 31일에 진행되였다. 판계부문 일군들,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 선장, 어로공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선물전달사가 있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수산부문이 있으신 뜻 희망한 새해를 앞두고 응징이런 선물을 가슴한가득 안겨주시였다'고 하면서 정녕 원수님은 혁명전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고 강조하였다. 전군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원수님을 결사옹위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에 주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구호를 들고 결사관철의 정신,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더 높이 울림으로써 새로운 선군풍경, 물고기대풍을 안아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지배인 고경룡, 선장 방철호, 어로공 양형문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에는 인민군대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이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당의 뜻을 명심하고 군인생활향상을 위한 어로전투를 힘차게 벌려 해마다 물고기대풍을 안아오기를 바라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워이르는 당의 크나큰 사랑에 흠뻑이 젖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총정의 결의들을 다지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인민군인들에게 보내줌으로써 당의 믿음에 보답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어로전투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으로써 군인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 진달래아동기금 회장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돐과 주제 103(2014)년 새해에 즈음하여 그이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이 지난해 12월 30일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제 103(2014)년 새해에 즈음하여 진달래아동기금 회장 진달래 싸파리니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일본 도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허종만 동지

나는 희망찬 새해 2014년을 맞이하면서 의장동지를 비롯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이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면서 총련조직을 반석같이 다지고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총련 제23차 전체대회가 있게 되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신 숭고한 믿음과 사랑을 예극의 열정으로 불태우며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에 되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나는 허종만 의장동지를 비롯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새해에 건강하고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김 정 은 평 양
주제 103(2014)년 1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이 년하장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제 103(2014)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이 년하장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연방 대통령,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과 가족,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하세미트요르단왕국 국왕과 부인, 우간다공화국 대통령과 부인, 몽골인민당 위원장, 정의의 로씨야당 위원장, 체히-모라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캐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년하장을 보내어왔다. 한편 미국사회로동당 전국비서, 로씨야 하바루스크변방 행정장관, 로씨야 이고리 모이세예브명칭 국립아카데미아민속무용단 지배인, 유엔사무총장이 년하장을 보내어왔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선물과 년하장이 지난해 12월 24일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일군에게 각각 전달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조 외교단,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제 103(2014)년 새해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지난해 12월 30일 외교관 단장인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와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쿠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박의손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 * *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제 103(2014)년 새해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지난해 12월 31일 무관단 단장인 하싼 레자 후세이니 이란이슬람 공화국대사관 무관이 인민무력부장 장정남 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로씨야 뻘뜨리오뜨신문사와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나이제리아대사관, 유엔개발계획대표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지난해 12월 31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 * *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씌여져있었다. * * *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주제 103(2014)년 새해에 즈음하여 지난해 12월 31일 주조 나이제리아연방 공화국대사관, 유엔개발계획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 * * 그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관 계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 담아 절세위인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백두산대국의 앞길에 보
다 큰 승리와 번영을 기약하며 희망찬 새해 주제103(2014)년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뜻깊은 새해에 즈음하여
탁월한 사상과 무비의 단력, 정력적인 명도로 주체혁명위업,
조국통일위업을 승리로 이끌어나가시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명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2013년은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서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명도력과 천출위인상이 다시금 만천하에
파시되고 원수님을 민족의 최고명수로 굳게 믿고 따르려는
은 거매의 신념과 의지가 활화산처럼 분출된 역사적인 해였
습니다.

은 세계를 진감시킨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이북민중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순위로 꼭꼭꼭 이북민에게 한
진건의 기적이라고 은 거매를 자주통일의 성전으로 불러일으키는
에국애국의 힘찬 추동력이었습니다.

국애의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하여
강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반
석같이 다지시어 주체혁명위업과 강성국가건설의 승리적전군로
를 환히 열어주시었습니다.

분세출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철의 신념과
단대한 배짱으로 자위적전쟁억제력을 일층 강화하고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화하시었으며 선군의 위력으로 미
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행동과 반공화국살상
행동을 걸음마다 좌절시켜오셨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거매의
운명을 수호해주셨습니다.

창조와 건설의 걸출한 영재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해 천만심장을 꺾게 하는 역사적인 호소문으로 이북군민의 정
신력을 총폭발시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민중생활향상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시고 주체건축과 체육, 과학기술과 예술 등
21세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의 손길따라 이북은 공화국창건
65돐, 전승 60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도 높이 민중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민중의 기쁨넘치는 세계적수준의 유희 및 체육시설과
회화한 살림집들, 우수축산처럼 일떠서는 기념비적창조물들
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헌신의 로고와 송고한
덕담은 우리 민중의 가슴속에 사랑으로 강대하고 사랑으로
번영하는 김정은시대의 밝은 앞날을 환희롭게 내다보게 하
고있었습니다.

한지백으로 잇닿은 이북에서 울려오는 민중사랑의 전설들
과 행복과 광명의 노래소리, 기쁨의 웃음소리는 《유신》독
재명령이 떠도는 어두운 이남땅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중의
가슴속에 희망의 빛으로 흘러들어 하루빨리 은 거매가
위대한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살고싶은 갈망에 불을 달아주
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의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
단합의 림장에서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

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는 예국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내외반통일세력의 발악적행동을 단호히 분쇄하
시며 우리 거매의 조국통일운동을 승리적으로 명도하시었
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수위어 높이 모신 거매의
공지와 자부심은 하늘에 닿고있으며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길에 조국의 자주적통일도 있고 민족의 무궁한 미래도 있다는
신념은 날을 따라 더욱 굳세어지고있습니다.

세계정치의 탁월한 명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
난해 반제반미대결전의 최전두에 서서서 동북아시아와 세
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주시고 자주적대의활
동으로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을 비사히 높이시었
습니다.

진정 2013년과 더불어 위대한 사상과 걸출한 명도력,
위인적품도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더욱 만방에 떨치셨으며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 인류자유위업의 앞길에 있는 전방을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
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분세출의 선군명장을 높이 모신 한없는 민족적행운과 공지를
안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반제민족민주전선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은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조국통일성업에 매진할
불라는 결기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들은 반제민전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살아도 죽어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받들고 따르는 불멸의 전위대오로 더욱 억세게 다져나가며 각계
민중에게 백두산철세위인들에게 대한 열화같은 호모심을 깊이 심어
주기 위한 선전전을 활발히 전개 해 온 남녘에 김정은승배열풍
이 뜨겁게 휘몰아치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사상과
방도들을 변함없는 지침으로 삼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절기차게 벌여나가며 이에 역행하
는 미국과 친미사대미국세력의 전쟁책동과 동족대결책동을 단
호히 짓부셔버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진보민주세력의 대단함을 이룩하여 보수집권세력의
날로 약화해지는 과조적관망과 《경건》유지기도를 좌절시키고
반민주적, 반민중적악정을 반대하는 대중적항거의 불길에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함으로써 기어이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오겠습니다.

시련과 난관은 많아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원한 태양의
빛발로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고 선군의 존엄떨치는 백두산대국
의 불멸의 위력이 있는 한 민족의 자주위업은 반드시 최후승리
의 환옥연에 도달할것임을 굳게 확신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병은 조국통일위업과 민족대번영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
계 애국민중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태양조국의 창창한 미
래와 민족대번영의 무궁번영을 위하여, 삼천리강산에 일망만세
의 환옥연에 도달할것임을 굳게 확신합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제103(2014)년 1월 1일 서 울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축하문

주체위업의 최고명도자이시며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자제로
은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백두산위인들의 영광찬
찬 혁명생애와 불멸의 명도업적이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 반
만년민중사에 일찌기 없었던 창조와 건설의 일대 번영기가 펼쳐
질 력사적비약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제일본조선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주제103(2014)년
을 맞이하여 주체위업의 운명이며 제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
진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해 주제102(2013)년은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과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정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뜻깊은 해였으며 반미대결전으로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케 하는 거창한
변혁이 이룩된 조국청사에 길이 새겨질 전향의 해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역사적인 첫 신년사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총진군의 포성을 울리시었으며 김정은원수님의
소중히 간직하시오 불멸주야의 초강대강행군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리상과 념원을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몸소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을
지켜물리시어 나라의 곳곳에 세계적수준의 대기범비적창조물들
이 편이 일떠서는 건설의 최정성기를 마련하시고 새해에 건설
의 대원명을 펼쳐나갈 전방을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조국명리 이역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총련일
군들과 제일동포들은 원수님의 비범한 명도력과 우리 인민들에게 사
회주의부귀영화로 안겨주시려는 한없이 송고한 조국사랑, 인민사랑,
후대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 문명국가로
위용될줄 주체조선의 위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내치었습니다.

우리들은 미제가 전략타격수단들을 조선반도구역과 상공에 집
결시키고 남조선에 미국의 최첨단정찰비행기를 대량적으로 끌어들이
어 언제 전정어 터질지 모르는 엄중한 지경에 이른 형편한 정세속
에서 천재적지략과 무비의 명관으로 원수님을 무모한 침략전쟁책
동을 짓밟게하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막강한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시는 또 한없는 백두산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신 커다란 긍지로 가슴벼차올랐으며 반미대결전전의 승리는 확정
적이라는 필승의 신념을 더 굳게 간직하였습니다.

주체위업에 대한 송고한 책임감과 강철의 의지로 조선로동당
과 혁명대오의 조직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더 굳건히 마련하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거대한 업적입니다.

정병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천리해안의 통찰력과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주체위업을 최후승리로 현명하게 명도하시
는 걸출한 정치가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거장이십니다.

지난해 천히 첫 새해축전을 보내주시고 조선반도에 일출출발의
핵전쟁위기가 조성된 준엄한 시기에도 총련일군들에게 억척불변
의 신념과 난국을 뚫고나가는 무비의 단력을 안겨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화국창건 65돐에 즈음하여서는 력사적인 첫 축하문
을 보내주시고 조국청사에 총련의 애국적공원을 새겨주시었습니다.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더욱 높이 떨쳐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이 밝혀진 력사적인 축하문을 받아안으시는 우
리 총련과 제일동포들만이 지닌 크나큰 믿음이고 특색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돌려주시 사랑
과 은정 그대로 기쁨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포들을 모진기 안아 주실수 있는 배려를 다 베풀어주시고
걸음걸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전승 60돐의 대추전장에 수많은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을 몸가
싸이 불러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

의 한없이 인자하고 담대한 기상이 넘쳐나는 거룩하신 영상은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 그대로이신 자제로은 아버지,
은혜로운 스승의 태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은정과 자제로은 손길이 있었기에 총련
은 류태없이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옹근 한해를 순간의 멈춤없이 기
세드높이 투쟁하여 애국애국운동에서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주체위업의 새로운 비약을
위한 총공력전이 개시되든 2014년의 첫 아침에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총련조직을 굳건히
고수하고 강화발전시키며 제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기어이
개척할 굳고굳은 결의를 다집니다.

총련은 새해에 가지게 될 제23차 전체대회를 단결과 승리의
대회로 장식하여 총련조직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바라시
는 일심단결의 대오로 반석같이 다지고 제일조선인운동발전에서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가는 계기로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조직적인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제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으로 드림같이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명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애국애국운동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뜻,
신념과 의지만이 차임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조국의 모습도 일심단결이고 총련의 모습도 일심단
결로 되어야 한다고 하신 아버지장군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받들
고 일군들과 동포들이 굳게 뭉친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그 어떤
난국도 파고파 뚫고나갔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총련의 각급 조
직들을 보다 튼튼히 다지고 제일조선인운동의 지역적적점인 지
부를 생기발발하게 움직이게 하며 동포사회가 언제나 화목하고
약동하며 민족적정서로 차임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은혜로운 사랑과 명도업적이
새겨진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을 고수하고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시키며 새 세대들을 애국애국운동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내세우고 동포사회운동의 애국충정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조국과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총련일군들은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광범한 동포들을 조국과 총련조직의 두리에 보다 폭넓게
묶어세우었습니다.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고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에 이
바치하는것은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송고한 애국적본분입니다.
우리들은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하여
위임없이 헌신지도의 길에 오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새겨 조국위업성을 특색있게 벌리며 조성된 정세에 대처
하여 대외활동을 진공적으로 전개하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해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총련일군들을 자신의 귀중한 전우이며 동지라고
불러주시고 제일동포들을 귀중한 한식술로 안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사랑을 항상 심장에 새기고
결세의 일들을 높이 모신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단체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더욱 높이 떨쳐졌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병은 전체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뜨거운
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위업의 최고명도자이시며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고 자제로은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육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103(2014)년 1월 1일 일본 도쿄

(시) 축원의 인사 2014년의 꿈

김 석 주

눈부시게 밝아온 새해
가슴가슴 친민가슴에 간직한
그 소원처럼 희망처럼
그리도 밝고 창창한 새해의 이 아침

백옥마냥 순결무구한
이 나라 군민의 마음이 비쳐서인가
하늘은 그지없이 맑고 푸르니더
흰눈덮인 강산은 눈부시니더

아, 새해의 이 아침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원수님을 우러르는 인민의 한마음이
축원, 축원이라고 새겨놓은듯습
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백두산의 맑은 정기 흘러넘치는
이 강에도
남산의 푸른 소나무 환희로이 설베
입니다

정일봉의 해돋이 불개도 빛받칩니다

장군님 념원 꽃피는 강산에 넘치는
축원입니다

민중을 위해 조국을 위해 걸고
걸으시는 자욱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그 자욱우에
억만간이 꽃을 피워드린들

우리 마음 어찌 다함이 있으리니까

은 나라 방방곡곡에 꽃피워주시
그 행복의 꽃, 만복의 꽃을 다 모아
원수님께 다발로, 바구니로 엮어드
린들

이 뜨거운 축원의 마음 다 담을수
있겠습니까

원수님의 사랑과 정을
혈연의 피를기르 이은
사회주의대가정은 굳건합니다
우리의 원수님만을 세상 끝까지 따를
일심의 대화가 끊이지 흐릅니다

은 나라 천만군민은
백옥같이 순결한 마음 삼가 드립
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어!
새해를 축하합니다

인민은 축원의 인사 삼가 드립니다
새해에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이북
입니다

위대하고 성스러운 위업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기를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언제나 안녕하시고 부디 행복하시
기를!

시

새해의 이 첫날
아름다운 새해의 이 거리
활기차게 들려오는 목소리를 정다
워라

—새해를 축하합니다!
내려오는 자욱마다에
내리는 설눈이 왜 이리도 포근한지
내리는 설눈이 왜 이리도 포근한지
내리는 설눈이 왜 이리도 유정인지
여기서 저기서 나누는 인사마저
떨기떨기 꽃이 되어 눈우에 피는듯
말하라 2014년, 류타른 새해여
너는 그 어디서 왔느냐
너는 무엇을 알고 왔느냐
희망찬 새해여
저기 저 마식령우에서 바라보이는
갈마반도의 정겨운 해돋이에
채찍소리 기세찬 미림의 승마주로
우에

기쁨이 출렁이는 문명의 파도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이쁜 첫선을
보인

문수물놀이장의 물안개우에
넘치여흐르는 《조국천가》의 선물에
하실

어이 모르랴
그 누군들 모르랴
울고웃으며 원수님 두리에 어계성을
쌓아온

우리의 마음우에 새해가 솟아오를줄
원수님 건넌방 지새시며 맞고보내신
2013년
그 하얀눈, 그 하얀눈 첫새벽이
이 새해를 안아온줄
그이 이 땅에 펼치신 강성번영의
설계도가
황홀하고 눈부시게 새해를 밝히는줄
우리의 힘
우리의 념
우리의 희망이신
원수님의 미소로 밝아온 이해
그이 온 누리를 밝히는 광채로
우리의 마음은 푸르고
그이의 리상으로
새해는 아름답워
남루로스 목소리 합쳐 이 아침도
부르는

아, 원수님! 우리 원수님!
이해에도 원수님은 바쁘시리라
천만가지 따듯이 품어안으시고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사연으로
2014년의 일력을 가득 채워가시리라
그이 이끌어가는 새해의 나날들이
산은 산마다 더 싱싱히 푸르리라
들은 들마다 오곡백과로 무거우리
강은 강마다
전변의 노래를 싣고 굽이쳐흐르리라
창조와 건설의 대기범비들은

하늘을 매우며 일떠서리라
우리 바라던 그 모든것
우리 바랄수 없었던것까지
원수님은 다 이루어주시리라
나날이 부푸는
부흥강국의 크나큰 꿈을 안고
우리는 열사하게 굽어지리라
조국도 산천도 더 굽어지리라
지구의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설맞이는 나뭇대로 흥성이고
모두들 북을 비드라 북비만
생각하노라

원수님께 따라 바람 북이 더 없음을
무슨 북을 더 바라랴
우리에겐 원수님이 계시는데야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신
김정은원수님을 아버지로 모셨는
데야

다만 안타까운 그 하나
인민에게 안겨주시 천만복을 위해
넋도 밟도 못 밟으실 그에게
인민이어 이 한해를
원수님을 위한 날과 달로 흐르게
할수없는
원수님 이야기로 품은 뜻이 풍하고
원수님 따르며 맺은 정 두리워진
우린 모두 원수님의 한식술
은 나라에 설인사 보내고싶구나
공장과 마당의 성실한 노동자들

한 동 신

수고많은 전야의 농민들에게
존경하는 로병들과 어머니들에게도
꽃아이처럼은 북우에 바치는 병사
들이여
풍요로운 기쁨저갈 고향소식 기다
리며
어찌에 멘 선군의 총대 더 굳건히
틀어잡으라
최첨단돌격전의 용사들이여
이 땅에 발붙인 탐구의 길에
더욱더 용감하라
강의하라 슬기로우라
해빛 눈부신 6월의 푸른 하늘
아래서
원수님의 축복을 받은 꽃봉우리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의 노래
목청껏 부르며 더 한껏 아름다우라
원수님 안아올리신 강대국의 아가
나, 원수님 삼골 내직으로
올해엔 서너뿔 우적 크라
태동하는 꿈을 품은 평양산인이여
이 나라의 너인들이여
아들도 딸도 우리에겐 다 흐르거너
원수님 길이 받들 영웅들만 냥으라
기쁨의 설인사는 거리에 차넘친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나도 축하하노라 새해여
원수님의 리상으로 밝고밝은 너의
모습

마식령스기장의 청춘들을 축하하
노라
세로판의 정복자들을 축하하노라
12년제의무교육의 수업을 축하하
노라
건설의 새 기적—무수한 준공의 순간
들을
세계 무대에 휘날릴 우리 국가의
찬란함을
너의 일력 갈피마다에 새겨질
성공과 환희
그 모든 경사와 새 건설의 탄생을
축하하노라
원수님의 존엄으로
원수님의 기상으로
세상을 굽어넘치는 선군의 조국
더 화목하고 아름다울
사회주의대가정의 형제들이여
가, 원수님 개리기신 새해의 큰길로
사회주의부귀영화, 문명리상국의
더 좋은 앞날이 우리를 부르나니
팔을 끼고 어깨걸고 노래하며 기리라
원수님만 따르면 우리는 잘살리라
원수님만 굳게 믿어 마음든든한 우리
원수님 이루실 그 모든 승리
벌써 다 안아보며 꽃다발 흔드는듯
아, 은 나라가 간직하는 이 꿈으로
더더욱 아름다운 우리의 새해여!
조선의 희망찬 2014년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로씨야연방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었다

모스크바
로씨야 연방 대통령
올라지르 올라지미로비치 푸틴각하

나는 로씨야연방 블고그라드에서 일어난 테로사건들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
는 소식에 접하여 당심과 당신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합
니다.

나는 이 기회에 온갖 형태의 테로행위를 반대하는 우리의 림장을 다시금 천명하면서 이번 테로
후과를 하루빨리 가지고 나라의 공고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로씨야정부와 인민의 모든 노력에
전적인 편대성을 보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평 양

성, 중앙기관들에서 꾸바공화국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었다

꾸바혁명승리 55돐에 즈음하
여 성, 중앙기관들에서 주요 꾸
바공화국대사관에 꽃바구니를
을 보내었다.
외무성, 무역성, 대외문화협력
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지난해 12월 31일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꾸바공화국 특명
전권대사에게 각각 전달되었다.

청춘거리 체육촌에 모자이크벽화 《청춘거리 준공식장에 몸소 나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혁명사적비 건립

청춘거리 체육촌에 모자이크
벽화 《청춘거리 준공식장에
몸소 나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혁명
사적비가 건립되었다.

체육인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백두산철위인들
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
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
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리중부체육상이 준공사를 하
였다.

연설자는 청춘거리 체육촌에
모자이크벽화를 모시고 혁명사
적비를 건립할때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그를 위한 사업을 정력적
으로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연설자는 은 나라 체육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탁월한
사상과 명도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만길로 이끄시는 우리 당과 인
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
정신을 높이 기리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것들이있는 청춘거리 체육촌에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려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면서 다음
과 같이 계속하였다.

체육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
들, 체육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야
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수반으
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
태양궁전을 결사옹위하는 제일결
새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당과 유일적명도체계를 철저
히 세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지시를 결사판철하는 혁
명적기풍이 체육부문에 차임치
게 할것이다.
일군들과 선수, 감독들은 체육
강국건설의 직접적담당자, 집행
자라는 자각을 안고 나라의 체육

위대한 로동당시대의 사회주의 문명을 자랑하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

세계 일류급으로 건설된 마식령스키장 개장식 진행

위대한 당의 령도하에 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진 격동적인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며 세계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이 일떠서 개장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구상과 애국의 호소를 피뎠는 심장마다에 간직한 인민군인들이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며 산세협한 마식령지구에 희한하게 건설한 스키장은 그 건설속도와 질, 규모와 내용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이며 김정일애국주의의 가인이 빛나는 결실이다.

스키주로의 수와 총연장 길이에 있어서 세계적이며 자연과 친숙하면서도 산골맛이 나는 호텔과 스키봉사 및 속도건설물, 직승기착물, 장 등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러진 마식령스키장은 체육과 관광, 휴식에 필요한 조건들을 완벽하면서도 훌륭하게 갖추고 있다.

인민들이 먼 후날에도 덕을 보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문명국의 상징인 마식령스키장의 개장은 어머니당이 만년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의 꿈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워주는 또 하나의 경사이다.

위대한 로동당시대가 펼쳐가는 천지개혁을 자랑하며 마식령스키장이 완공됨으로써 마음껏 스키를 타며 체력을 단련하고 장대한 해돋이와 자연경치를 감상하면서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터치는 사회주의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말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훌륭히 완공된 마식령스키장 개장식이 주제 102(2013)년 12월 31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개장식장에 모셔져 있었다.

개장식장상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시다》, 《인심단결》, 《결사투위》라는 구호와 글발들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개장식장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더욱 빛내이자!》,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으로 만들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박봉주동지, 최봉해동지, 김기남동지, 강성주동지와 박정남 강원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체육부문 일군들, 군인건설자들, 도내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개장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봉해동지가 개장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관심속에 마식령스키장 개장식을 가지게 된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마식령스키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려는 위대한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받들어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는 온갖 행복을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몸소 발기하시였으며 몸소 한자한자 쓰신 력사적인 호소문을 받아안은 인민군장병들에는 방대한 면적의 천연산지를 개척하여 10개의 스키주로를 번듯하게 닦아놓고 60개 대상건설을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내밀어 완공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결심은 곧 조건의 실현이라는것을 온 세계앞에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었다.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한여름의 무더위와 12월의 맹추위로 다다하지 않고도 건설장을 무려 5차례나 찾으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은 해발 1,360m의 대화봉을 비롯한 스키장 그 어디에나 뜨겁게 어려 있다.

당의 주제적전축미학사상이 구현된 스키장은 자연생태환경으로부터 건축물의 마감 장식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미감, 문명과 건축의 첨단을 돌파할대 대한 시대적요구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러졌다.

마식령스키장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대전적속도, 《마식령속도》의 발원지로 자랑될것이었다.

마식령스키장건설은 당의 령도를 받들어 선군혁명적 새로운 시대의 대전적속도, 대비약속도를 창조하는 격동적인 투쟁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의 행복복합 모습을 그려보시며 몸소 한자한자 쓰신 력사적인 호소문을 받아안은 인민군장병들에는 방대한 면적의 천연산지를 개척하여 10개의 스키주로를 번듯하게 닦아놓고 60개 대상건설을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내밀어 완공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결심은 곧 조건의 실현이라는것을 온 세계앞에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었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 련관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자재와 설비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였으며 강원도를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은 자연생태환경을 훌륭히 보존하는데서와 물심양면의 지원사업에서 애국적인 신성과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남달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마식령속도》라는 새로운 시대를 빛내인 영웅한 건설자들, 참다운 애국자들의 위훈을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었다.

연설자는 전체 건설자들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경도의 마음을 담아 내 나라, 내 조국을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그는 김정일애국주의의 모든 시선과 건물을 적극 애호관리하고 봉사활동을 짜고들어 당의 은정이 인민들에게 더욱 뜨겁게 가닿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군인들이 조국수호의 전초선과 대고조의 격전장들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 창조자로서 의 본래와 기질을 더욱 힘있게 떨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건설부문과 련관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주제적전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연영기를 열어나가자!》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용기백배하여 투쟁해나감으로써 오늘의 승리가 래일의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을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고자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 대고조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이 땅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이 건설에 참가한 단위 지휘성원들과 강원도의 책임일군, 스키장관리일군이 개장테이프를 끊고 있었다.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노래주악이 마식령산발들에 메아리치는 속에 스키장을 건설한 군인대표들, 스키장을 리용하게 될 청년학생대표들이 개장테이프를 끊었다.

개장식장에 우렁찬 박수소리가 울려 퍼지고 고교부흥선들이 날아올라 마식령산공룡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이 누릴것 천만복을 위해 끝없는 헌신의 로고를 바치시며 이 땅에 사회주의문명의 눈신 개화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강성번영할 조국의 아름다운 래일을 확신하였다.

개장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이 꾸러진 스키장의 여러곳을 감탄속에 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훌륭하게 완공된 마식령호텔을 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고 한량없는 인민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인민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고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훌륭히 꾸러진 스키봉사 및 속도건설물들을 보며 그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자신만만하게 세계를 당당히 앞서나가며 선군조선의 문명을 창조해나가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였다.

한편 마식령스키장이 부른 겨울의 수려한 경관을 안고 산발들에 줄줄이 뻗

어린 스키주로를 따라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마음껏 스키운행을 하는 행복넘친 광경이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아득히 솟아있는 대화봉정점까지 삭도를 타고 올라 스키장주로의 시작점에서부터 기세차게 치켜내리며 민첩성과 높은 기교를 보여주는 선수들의 모습은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당의 부름이라 그런 어떤 험준한 산악도 단숨에 뛰어넘고 폭풍적 질주해나갈 역센 용맹과 필승의 신성을 안겨 주었다.

청소년학생들과 애국들도 초, 중급주로들에서 용감성과 대력을 키우며 스키운동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의 씩씩하고 기쁨에 넘친 모습에서 참가자들은 당의 손길아래 온 나라에 스키바람이 불 래일을 그려보며 약동하는 젊음과 열정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앞길을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것을 가슴벅차게 새겨안았다.

사회주의문명국의 활황한 선경을 펼친 마식령스키장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맞이하게 된다.

선군조선의 문명의 산악과 더불어 북반은 우리 인민이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는 절세위인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전설을 전하며 세세년년 울려 퍼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 《밝은 미래가 있으라》 진행

희망찬 새해 주제 103(2014)년을 맞으며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 《밝은 미래가 있으라》가 12월 31일 만경대학생소년공전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피사로운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면서 희망과 재능을 꽃피운 학생소년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설에 이끄는 공연장소는 《새해를 축하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요》, 《세상에 부럽없으라》라는 글발들과 줄전구 등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새해》라는 글발과 전광장지들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최봉해동지, 장정남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도훈동지, 김영춘동지, 양형성동지, 리용무동지, 강석주동지, 오규철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김정해동지, 박병기동지, 문경덕동지, 최부일동지, 김창성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내각,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포로자들, 평

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울해 전례없는 물고기 대풍을 안아온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들의 참가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반제인민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사회주의조국을 방호하고있는 해외동포들, 주조 여러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부, 무관부부들, 외국손님들이 공연에 초대되었다.

공연은 시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설인사 드립니

다》로 시작되었다.

출연자들은 자라나는 세대들을 은레온 환골에 안아 반복을 다 안겨주시는 백두산대국의 태양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삼가 경례를 올렸다.

무대에는 세쌍둥이노래 《제일 기쁜 날》, 6중창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원수님》, 너독창 《원수님은 우리 아버지》, 노래복을 《영원한 우리 해님》, 가부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아영소로》, 3중창과

합창 《원수님은 우리 행복 우리 앞날》, 손풍금합주 《세상에 부럽없으라》 등의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우리 어린이들을 조국의 미래,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고 제일로 사랑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한 해님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는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뜨거운 마음을 감명있게 형상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그대로 지니시고 세대들을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강성조선

의 주인공들로 역세게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종무마다에 넘쳐흘렀다.

민족기악3중주 《제일 좋은 내 나라》, 민속기악과 노래 《어제부터 먼저 같가》, 중창 《달리자 사랑의 통마타고》를 비롯한 종목들에 출연한 행복동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또 한번의 희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내 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하여 확신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을 받아안은 감격을 안고 한성토록 보던의 길을 걸으려는

굳은 결의를 형성한 행복동아들의 무대 《해님의 축복》, 음악과 무용 《원수님을 따라 끝까지》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기쁨의 노래, 광만년친 춤출 결이 흐르는 공연무대에 앞날의 선군조선을 떠메고나갈 학생소년들의 역센 기상을 반영한 남독창 《나를 보고 욕심이 하늘갈대요》, 합창 《만경대 혈통 백두의 혈통 굳건히 이어가라》 등이 힘차게 울려 퍼졌다.

중창 《해님의 축복안고 밝은 미래로》로 끝난 공연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미래를 지켜주고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지덕체를 겸비한 혁명의 계승자들로 준비하고있는 세대들의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전체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학생소년들에게 이 세상 부럽없는 행복을 마련해주시는 천하제일강국, 사회주의문명국을 이 땅에 훌륭히 일떠세울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로동당시대 사회주의문명을 자랑하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

